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 영향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ly

김희정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Hee-Jung Kim(cholong98@c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고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전략을 제공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로 D시 및 K 지역 간호학과 4학년 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결과 분석은 SPSS/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14.78이었고, 노화불안 점수는 2.88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4.09, 노인돌봄태도 점수는 5.16이었다.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 선호도, 노화불안, 원하는 부양 형태이었으며, 이때 모형의 설명력은 24.7%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과정에서 긍정적인 노인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 | 태도 | 노화불안 | 지식 | 간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and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227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 of nursing in D-city and K region. Data was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on subjects' characteristics, knowledge toward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program. The average score of knowledge, aging anxiet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of participants were 14.78, 2.88, 4.09, 5.16.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wer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preference of caring for the elderly, aging anxiety, favorable type to be support as a parent.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4.7%.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s may be necessary to improve attitude toward caring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strategy of providing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elderly for nursing students as well as geriatric nursing education.

■ keyword : | Elderly | Attitude | Aging Anxiety | Knowledge | Nursing Car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에 따라 보건의료와 노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노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 및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간호현장 어디서나 노인대상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3]. 따라서 질병에 걸려 고통 받는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4].

노인돌봄태도란 노인 돌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으로, 노인돌봄태도는 노인간호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5]. 일반적으로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거나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간호사의 실무역역과 간호의 질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6].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근무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 관련 분야의 인력 채용이 어려움을 겪는 등 노인간호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7].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태도는 향후 노인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노인대상자에 대한 돌봄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8]. 따라서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돌봄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노인대상자에 대한 돌봄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대상자에 대한 돌봄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립적 수준에 있었으나[6],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9]. 또한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Varkey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돌봄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김영옥[5]의 연구에서는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적인 노인과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인돌봄태도와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노인과의 동거경험, 자원봉사경험 등의 대상자 특성에 노인 관련 지식수준, 노화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11-13],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노인돌봄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가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노인대상자에 대한 지식 부족은 간호의 질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태도에서 행동이 나타나므로 지식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태도는 유기적인 관계로 설명된다[14]. 따라서 노인돌봄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노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5]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간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화불안이란 노화과정과 관련된 불안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의 갈등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속화시켜 노화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3].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은 자신의 노화과정은 물론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또한 노화불안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중재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7].

지금까지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특히 실제 임상현장에서 노인간호를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며 노인대상자에 대한 돌봄태도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고,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고,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돌봄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돌봄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자는 D시 및 K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259명이었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표본수를 구하기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25개

로 하여 산출된 표본수인 216명을 근거로 탈락율(20%)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59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중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 32부를 제외한 227부가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3. 연구 도구

3.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Palmore[18]의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 1(FAQ 1)을 양경미 등[19]이 우리나라 노인실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화과정 및 이와 연관된 생리적, 심리적, 가족 사회적 관점에 관한 서술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진술에 대해 설문 응답자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산정하고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양경미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였다.

3.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20]의 '노화불안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이정희 등[2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노화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을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중 부정문항의 경우 역코딩 후 통계처리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이정희 등[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3.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은 Sanders 등[22]이 개발한 노화 의미 분별 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오현수와 정혜선[6]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현명한-어리석은”, “친절한-불친절한” 등과 같이 상반되는 20개의 형용사 조합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로 1-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며, 문항 중 부정문항은 역코딩 후 통계 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6이었으며, 오현수와 정혜선[5]의 연구에서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3.4 노인돌봄태도

노인돌봄태도는 김영옥[5]이 개발한 노인돌봄태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적극성, 친절, 따뜻함, 책임감, 중요함 등의 형용사를 이용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김영옥[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D시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UIRB-2015-0023)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D시 및 K 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를 편의 추출한 후 자료 수집에 대한 학과장의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측정된 자료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간호 관련 특성,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는 실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227명으로 여성 92.5%였고, 평균 연령은 23.18±1.57이었다. 대상자의 52.4%가 종교가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중 현재 또는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0%였고,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1%였으며, 노인체험이 있는 학생은 15.1%였다.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76.2%였고, 노인간호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72.2%였으며, 이중 실습기관은 대학병원의 노인병동이 59.0%였다. 원하는 부양 형태는 61.2%가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부양하는 것을 원하였다. 노인대상자 간호에 대한 선호도는 '상관없다'가 65.6%였고, 노인간호에 대한 난이도는 55.9%가 어렵다고 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 관련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7	(7.5)
	여	210	(92.5)
연령(년)	21-25	209	(92.1)
	26-30	17	(7.5)
	31≤	1	(0.4)
	31≤	1	(0.4)
종교	기독교	35	(15.4)
	가톨릭	38	(16.7)
	불교	35	(15.4)
	무교	119	(52.4)
성적(학점)	2.0~2.9	19	(8.3)
	3.0~4.0	185	(81.5)
	4.0<	23	(10.1)
조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90	(39.6)
	조부만 생존	8	(3.5)
	조모만 생존	83	(36.6)
	모두 사망	46	(20.3)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현재 동거	29	(12.8)
	과거 동거	64	(28.2)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없음	134 (59.0)
	예	100 (44.1)
	아니오	127 (55.9)
노인 체험 여부	예	34 (15.1)
	아니오	191 (84.9)
노인교육 경험	예	173 (76.2)
	아니오	54 (23.8)
노인간호실습 경험	예	164 (72.2)
	아니오	63 (27.8)
실습 장소 (n=164)	노인요양시설	27 (16.3)
	노인요양병원	8 (4.8)
	노인복지관	6 (3.6)
	대학병원	98 (59.0)
	기타	25 (16.3)
원하는 부양형태 [*]	노인병원 및 요양 시설	37 (16.3)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부양	139 (61.2)
	집에서 부양	47 (20.7)
	기타	4 (1.8)
노인간호 선호도 [*]	좋아한다	62 (27.3)
	상관없다	149 (65.6)
	싫어한다	16 (7.0)
노인간호에 대한 어려움	어렵다	127 (55.9)
	어렵지 않다	100 (44.1)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노인간호 실습장소, 원하는 부양 형태, 노인간호의 선호도 및 지각된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 실습 장소가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4.82±0.71 대학병원인 경우가 5.26±0.67으로 사후 검정 결과 대학병원인 경우가 긍정적이었다(p=.050). 원하는 부양 형태에 따른 노인돌봄태도는 ‘노인 병원 및 노인 시설 이용’로 답한 경우가 4.86±0.73으로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부양’으로 답한 경우의 5.28±0.73보다 긍정적이었으며(p=.004), 노인간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생이 5.47±0.81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이었다(p<001). 또한 노인간호가 어렵지 않다고 한 경우가 5.04±0.68로 어렵다고 느낀 경우의 5.32±0.79보다 긍정적이었다(p=.005)[표 2].

표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 (n=227)

특성	구분	노인돌봄태도			
		M	±SD	F/t	p
성별	남	5.02	±0.72	0.68	.410
	여	5.17	±0.74		
연령(년)	21-25	5.15	±0.75	1.71	.183
	26-30	5.22	±0.59		
	31≤	6.50	±0.00		
종교	기독교	5.21	±0.72	1.05	.370
	가톨릭	5.33	±0.67		
	불교	5.13	±0.82		
	무교	5.10	±0.74		
성적(학점)	2.0~2.9	5.06	±0.58	0.42	.653
	3.0~4.0	5.16	±0.76		
조부모 생존 여부	4.0<	5.27	±0.71		
	모두 생존	5.13	±0.77	1.09	.353
	조부만 생존	4.76	±0.88		
	조모만 생존	5.19	±0.67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현재 동거	모두 사망	5.25	±0.77		
	과거 동거	5.10	±0.79	1.50	.225
	없음	5.30	±0.66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	예	5.12	±0.76		
	아니오	5.15	±0.72	0.18	.665
노인 체험 여부	예	5.22	±0.85		
	아니오	5.34	±0.78	2.51	.115
노인교육 경험	예	5.12	±0.72		
	아니오	5.14	±0.75	0.42	.517
노인간호실습 경험	예	5.22	±0.73		
	아니오	5.19	±0.72	0.94	.332
	실습 장소 [*] (n=164)	노인요양시설 ^a	4.82	±0.72	2.38
	노인요양병원 ^b	5.23	±1.25		a(d)
	노인복지관 ^c	5.50	±0.53		
	대학병원 ^d	5.26	±0.67		
	기타 ^e	5.18	±0.68		
원하는 부양형태 [*]	노인병원 및 요양 시설 ^a	4.86	±0.73	4.55	.004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 ^b	5.28	±0.73		a(b)
	집에서 부양 ^c	5.12	±0.71		
노인간호 선호도 [*]	좋아한다 ^a	4.47	±0.47		
	상관없다 ^b	5.47	±0.81	13.37	.000
	싫어한다 ^c	5.10	±0.66		a)b)c
노인간호에 대한 어려움	어렵다	4.51	±0.62		
	어렵지 않다	5.04	±0.68	8.13	.005
	어렵지 않다	5.32	±0.79		

*post hoc: Scheffe test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점수는 14.78±3.1 이었고, 노화불안 점수는 2.88±0.39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4.09±0.49, 노인돌봄태도 점수는 5.16±0.74 였다[표 3].

표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227)

변수	M	±SD	Min	Max	Range
노인에 대한 지식	14.78	±3.10	6.00	22.00	0~25
노화불안	2.88	±0.39	1.65	4.75	1~5
노인에 대한 태도	4.09	±0.49	2.40	5.55	1~7
노인돌봄태도	5.16	±0.74	2.80	6.75	1~7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이었으며($r=.40, p<.001$),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으며($r=-.31, p<.001$).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으며($r=-.40, p<.001$),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돌봄태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

표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n=227)

변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r(p)		
노인에 대한 지식	1.00		
노화불안	-.05 (.407)	1.00	
노인에 대한 태도	.06 (.396)	-.40 (.001)	1.00
노인돌봄태도	.08 (.228)	-.31 (.001)	.40 (.001)

5.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 중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간호 선호도, 원하는 부양 형태, 노인간호 난이도와 주요 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불안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범주형 변수인 원하는 부양 형태, 노인간호 선호도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공차 한계값은 .822~.967로 값이 0.1이상,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34 ~ 1.217로 10보다 작았으며 상대지수는 1.00~

14.23으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 변수들은 없었다. Durbin-Watson을 사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670으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Kolmogorov-Smirnov test에서 $p>.05$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8.44, p<.001$), 이때 모형의 설명력은 24.7%였다.

분석결과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 선호도, 원하는 부양 형태, 노화불안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beta=.30, p<.001$), 원하는 부양 형태로 ‘노인 병원 및 노인 시설 이용’으로 답한 경우에 비해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부양’으로 답한 경우($\beta=.17, p<.001$)가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노화불안이 높을수록($\beta=-.17, p=.008$), 노인간호 선호 정도에서 ‘좋다’고 답한 경우에 비해 ‘보통’으로 답한 경우($\beta=-.19, p=.001$)가 노인돌봄태도가 부정적이었[표 5].

표 5.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27)

변수	B	SE	β	t	p
상수	4.16	.62		6.67	<.001
노인에 대한 태도	.44	.09	.30	4.63	<.001
노인간호 선호도 (상관없다)	-.57	.17	-.19	-3.31	.001
원하는 부양형태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	.26	.09	.17	2.86	.005
노화불안	-.32	.12	-.17	-2.67	.008
$R^2=.25, \text{ Adjusted } R^2=.24, F=18.44, p<.001$					

* dummy variable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평균 5.16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4.54~4.95 보다 더 긍정적인 수준이었다[3][5][12]. 이처럼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

접 노인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와 비교해볼 때 주로 간접지식을 쌓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실제 노인간호에 임하기 전이므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가 낮은 이유는 임상현장에서 아프고 의존적인 상황의 노인을 많이 접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간호하는 대상자를 부담스럽게 여겨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8]. 노인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노인돌봄태도가 실제 간호사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간호를 어렵게 여기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돌봄태도가 낮았는데 이는 노인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노인간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명희[7]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자원봉사 경험이나 노인간호 실습 유무 등은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박경연[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12][23]. 일부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노인과의 동거경험 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김정희와 정혜선[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노인과의 거주 기억이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 Mattos 등[2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노인과의 동거경험 여부가 본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핵가족 및 가족의 분리 추세로 인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노인간호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간호 선호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정혜선[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장차 노인간호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

생에 비해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하는 부양형태가 부분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노인돌봄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6]에서 부모 부양 시 선호방법에서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가족이 돌보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7]. 간호대학생의 노화불안은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되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 노화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이해와 지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화불안은 비교적 최근에야 그 개념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고, 노인간호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환자 곁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와 관련된 영향요인으로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4.09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4.02~4.53으로 중립적 수준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7][9][1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에 대한 태도에 비해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이 노인대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노인간호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9][2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노인돌봄태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25점 만점에 14.78로 정답률은 59%로서 Palmore[18]가 분석한 대학생 집단의 평균 정답률 52~69%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경미 등[19]의 50.2%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과 태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Koh[2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지식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4][7].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간호 교육 경험은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는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는데 [11][12] 이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간호 교육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이 더 많은 신체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므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를 고찰해 볼 때 단순한 지식 상승만으로는 노인 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돌봄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보다는 노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부과정에서의 노인대상자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 실습 경험에서 노인과의 불만족스러운 경험이나 접촉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선[9]은 노인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증진시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Mattos 등[24]은 임상실습에서의 구조화된 대상자 경험은 간호대학생이 노인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간호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노인돌봄태도는 노인간호 실습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4]. 반면에, 단순한 노인 체험이나 자원봉사경험 유무 등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오현수와 정혜선[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노인유사체험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체험의 형태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하며, 특히 일회성 체험은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3][5][10]. Ryan 등[29]은 간호대학생에게 1년 동안 지역사회 내 잘 늙은(well-old)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한 후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 긍정적인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돌봄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장소의 신중한 선택과 구조화된 대상자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대상자를 간호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특성상 일반 노인과의 경험 외에도 노인환자와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노인간호 선호도, 노인간호 실습장소 등과 같은 대상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때 노인돌봄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제공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노인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증진시켜 노인돌봄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 노인자원봉사, 노인유사체험 등 일회성 체험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구조화된 노인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3개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노인간호 교육과정과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노인간호를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고,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점수는 14.78 ± 3.1 이었고, 노화불안 점수는 2.88 ± 0.39 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4.09 ± 0.49 , 노인돌봄태도 점수는 5.16 ± 0.74 이었다.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 선호도, 노화불안, 원하는 부양 형태이었으며, 이때 모형의 설명력은 24.7%였다.

본 연구결과를 고찰해보면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노인간호 실습장소, 원하는 부양 형태, 노화불안 등과 같은 영향요인을 고려할 때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과정에서 노인과의 긍정적이고 구조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과의 경험이나 경험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불안 등을 주요 변인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노인돌봄태도의 다른 영향 요인 탐색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노인통계, 통계청, 2012.
- [2] A. Mckinlay and S. Cowan,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s working with older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3, No.3, pp.298-309, 2003.
- [3] 양재명, 노인 유사체험이 신규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 및 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 M. Courtney, S. Tong, and A. Walsh,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6, No.2, pp.62-69, 2000.
- [5] 김영옥, 노인유사체험이 임상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돌봄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6] 오현수, 정혜선,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358-3367, 2013.
- [7] 김명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pp.113-126, 2011.
- [8] S. Zhang, Y. H. Liu, H. F. Zhang, L. N. Meng, and P. X. Liu, "Determinan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 willingness towards the elderly in China: Attitudes, gratitude and knowledge," *Nursing Education Today*, Vol.43, pp.28-33, 2016.
- [9] 정혜선,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7권, 제3호, pp.15-28, 2013.
- [10] P. Varkey, D. S. Chatka, and T. G. Lesnick, "The aging game: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71, No.4, pp.224-229, 2006.
- [11] 이숙희, "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8-26, 2014.
- [12] 김연수,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3] Y. Haron, S. Levy, M. Albagli, R. Rotstein, and S. Riba, "Why do nursing students not want to work in geriatric care? a 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50, No.12, pp.1558-1565, 2013.
- [14] 박경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3호, pp.191-199, 2012.

[15] 박선영, 박영숙,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노인간호교육 필요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9-65, 2007.

[16] 김신미, 김순이, “노인의 노화불안과 삶의 질,”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07-218, 2009

[17] 김은하, “중년 이후 여성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92-202, 2007.

[18]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Springer Publishing Co, 1998.

[19]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백영주,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의대 논문집, 제27권, 제1호, pp.256-262, 2002.

[20]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21] 이정희, 안영식, 윤소정,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제27권, 제2호, pp.345-355, 2007.

[22]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and C. Balt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1984.

[23] 김정희, 정혜선,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40-850, 2013.

[24] M. K. Mattos, Y. Jiang, J. B. Seaman, M. L. Nilsen, E. R. Chasens, and L. M. Novosel,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41, No.7, pp.46-56, 2015.

[25] 박향숙, 서순립, 김수현,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의 사용정도 간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14-623, 2007.

[26] 전미경, 임상 간호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7] 박재숙, 성희자, “사회복지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3권, 제1호, pp.1-26, 2010.

[28] L. C. Koh, “Student attitudes and educational support in caring for older people: a review of literatur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2, No.1, pp.16-20, 2012.

[29] A. Ryan, V. Melby, and L. Mitchell,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intervention on nursing students’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Vol.2, No.2, pp.93-101, 2007.

저 자 소 개

김희정(Hee-Jung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